

대한민국,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수검 예정

제네바 (2023년 1월 23일) – 대한민국의 인권 성적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정례인권검토 (Universal Periodic Review, 이하 UPR) 실무그룹에 의해 검토될 예정이다. 2023년 1월 26일 목요일에 개최예정인 본 실무그룹 회의는 [유엔 웹캐스트에서](#) 생중계되며, 대한민국의 4차 검토이다.

대한민국은 1월 23일부터 2월 3일까지 개최예정인 UPR 회의의 검토대상 국가 중 하나로, 대한민국의 제 1, 2, 3차 검토는 각각 2008년 5월, 2012년 10월, 그리고 2017년 11월에 진행된 바 있다.

UPR 인권검토는 1) 수검대상국이 제출한 국가보고서, 2) 유엔 특별절차, 유엔 조약기구 및 여타 유엔기구와 같은 독립적인 인권 전문가 및 단체의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, 3) 국가인권위원회, 지역단체, 시민단체 등 기타 이해당사자가 제공한 정보와 같은 문서를 바탕으로 한다.

대한민국의 제 1, 2, 3차 UPR 수검 보고서는 금번 대한민국의 UPR 검토의 기초가 되며, 해당 [웹사이트](#)에서 찾아볼 수 있다.

장소: 유엔 제네바사무소, 20번 회의실

날짜 및 시간: 2023년 1월 26일, 목요일, 제네바 시각 14:30–18:00 (GMT +1)

UPR은 유엔 193개 회원국의 인권기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유일한 절차로서, 첫번째 회의가 열린 2008년 4월 이래 모든 유엔회원국은 1, 2, 3차 회기에 걸쳐 총 3차례 검토된 바 있다. 다가오는 제 4차 UPR 회기 동안 회원국들은 지난 검토 당시 수락한 권고사항의 이행 상황 및 최근의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.

대한민국의 대표단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.

대한민국의 UPR 검토 시 보고관을 담당할 회원국은 코트디부이라, UAE 및 프랑스이다.

본 회의의 웹캐스트는 <https://media.un.org/en/asset/k10/k10ekje7ai>에서 접속 가능하다.

대한민국 검토 시 발언국 명단 및 발언문은 [UPR Extranet](#)에 게재될 예정이다.

UPR 실무그룹이 대한민국에 제시할 권고사항은 2월 1일 15:30 경에 채택될 예정이다. 수검국은 검토회의 중 권고사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.

/끝/

추가 정보 및 언론 요청 Rolando Gómez, HRC Media Officer (rolando.gomez@un.org)
Matthew Brown, HRC Public Information Officer (matthew.brown@un.org); Pascal Sim,
HRC Public Information Officer (simp@un.org)

보편적정례인권검토(UPR)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, 웹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.
<https://www.ohchr.org/en/hr-bodies/upr/upr-main>.

유엔인권이사회, 소셜미디어 팔로우하기
[Facebook](#) | [Twitter](#) | [YouTube](#) | [Instagram](#)